

오레곤에 계신 서울대학 동문 여러분,

다 무고하시리라 믿습니다.

1. 서울대 오레곤동문회 Forum 인 Zoom Table 세미나 시리즈 제 5 차 강연이 어제 6 월 11 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Washington 지부에서 주관, 오레곤지부 협조였던 한국남교수님의 “희토류” 강연에, 오레곤에서 오신 7 분, 와싱턴주를 포함 타주에서 들어오신 동문 9 분등, 연사포함 모두 16 명의 참석자가 있던 가운데, 보잉의 김재훈박사(공대 72)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한국남 교수님, 그리고 오레곤동문회의 활동에 참석으로 도움을 주신, 참석 오레곤동문들 감사드립니다.

오레곤 지역 참석자들 (존칭생략): 한국남(공대 57), 김성열 (치대 61), 전병택 (상대 65), 정성국 (문리 73), 백대현 (상대 77), 박희진(농대 78), 박혜선 (자연대 79)

강연 후기 (박 희진)

날이 갈수록 국가적인 쟁탈전이 치열해져가는 소위 희토류, 일반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희토류에 대한 지식, 전문 학자이신 한국남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정말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희토류의 정의로부터 시작되어, 영구자석 및 catalyst 의 절대적 성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희귀한 특성 (f-block orbital), 그 외 거의 모든 현대 첨단기기에 첨가되는 응용 사례들의 예와 더불어, 이런 희토류의 90% 이상 생산해왔던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보면, “왜 이토록 전세계가 여기에 매달리나?” 라는 의문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오염건으로 그동안 purification 을 자국내에서 기피했었던 여러 나라들이 지금은 직접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양적 희귀와 small size 로의 존재로, 광물을 분쇄하여, 물리적 화학적 요법으로 정제하는 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도, 알기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모국 한국과 같은 지하자원 빈국에겐,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았던 문구, “재활용 기술을 이용, 지하자원의 지상자원화”, 이는 우리에게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 설정의 암시였습니다.

Washington 지부의 도움으로 강연 녹화 link 를 받았으니, 관심 있는 동문은 밑 link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eeting Recording:

https://us02web.zoom.us/rec/share/gkcUwCiskoya249NZp6HkGaCvIYjOiEzhDE_aTNnJS2KbYZbgV0W42A_gmTvCd6h.t30maMLu0FRI4Wnm

Access Passcode: B#7r%4K@

2. 오레곤 Zoom Table 제 6 차 강연이 7 월 16 일 토요일 11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7 월 16 일 (토요일) 오전 11 시 (서부시간), 그 후 자유대화시간

연사: 이정희 교수 (문리대), 교수, Portland State University

제목: 한국/일본/중국, 삼국 문화의 차이와 특징

(부제: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어떤면이 다른것인가)

이정희 교수



고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아시아,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와 중 아시아지역의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시며, 이 분야에 많은 논문과 article 을 발표하신 이정희교수님의 이 강연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아시아 한.중.일 삼국간의 문화적/예술적 차이점을 통해, 그들과의 현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위한 세미나입니다.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미국의 한국의 문화 열풍에 놀란 이 인접 두 나라의 “문화원조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우린 한국혈통으로서, 그동안 서로 비슷하다고만 느껴왔던 우리와 그들과의 문화 예술에,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면이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특이한것인지에대해 더 잘알고있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에, 이 강연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6121173694?pwd=WVJyM1BTUVJKNG5lOZNMGICMIJodz09>

Meeting ID: 861 2117 3694

Passcode: 851382

3. 동문주소록의 Update 를 하려합니다. 현 주소록을 동봉합니다.

주변에 아직도 동문 주소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동문이나 새로 이지역에 오신 동문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또 에러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4. 특히 2000년대 학번의 동문이 전혀 update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레곤 동문회가 다시 동면상태로 들어갈시 그 명부가 유일한 연락처이니, 동문회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주소록에 모든 서울대 동문이 들어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input 을 기대합니다.

5. **미주 총동창회 Web Site 속 오레곤지부 web Page 가 개설되어, 지난 뉴스레터등을 볼수있고, Bulletin board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http://snuuaa.org/main/oregon-chapter/>

6.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 (6 월 24- 26 일)**

제 31 차 미주 동문회 평의원회의가 미국 LA Pacific Farms Resort 에서 한국에서 오세정 총장과 김종섭 총동문회장등 여러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올해 동창회 평의원회에 오레곤 참석자가 없습니다.

7. **한국과학 기술 한림원 (회장 유 옥준 박사)의 세미나 시리즈**

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시리즈인 한림원탁토론회의는 모국인 한국의 과학 방향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 시리즈입니다. 세미나 일정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 한림원 정회원이신 오레곤의 한국남 교수님 (공대 57)에게 문의하시면(동문명부참조) 그 세미나 시리즈의 일정을 알수있습니다.

8. **동문 소식란 입니다.**

여기가 동문 소식 알리는 칸입니다. 동문들에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을때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실어 알리는 장으로 삼겠습니다.

9. **다음은 다가 올, Zoom Table 대화 시리즈 일정입니다. Link 는 차후 광고시 보내드립니다.**

- 8 월 20 일 (토요일) 오전 11 시: 김 왕도 교수* (공대 75), 교수, Universidad de Ingeniería y Tecnología (UTEC), Lima, Peru (* Oregon alumnus)
“페루 이야기- 잉카 후에 페루의 역사, 도시, 풍속, 페루에서의 생활과 teaching”
- 9 월 24 일 (토요일) 오후 7 시* (미국 서부시간): 김 영호 박사 (정치외교 78), 교수, 성신여자대학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 (*연사가 한국에 있으므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건승하기 바랍니다.

박희진

SNUAA-Oregon 지부회장

Jan 2022-Dec 2022